

매맞는 아내 보호 독립법 제정 요구높다

내년초 '구타법'추진위 구성 공청회등 열기로 휴식처 현재 5곳...전지역 확산·재정지원해야

매맞는 아내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한 '남편에 의한 구타'를 심각한 사회문제, 가정폭력으로 인식해 매맞는 아내들의 긴급 피난처인 쉼터를 전지역으로 확산하고, 구타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매맞는 아내들의 긴급 피난처이자 휴식처 역할을 하는 곳은 한국여성의전화(대표 김계정)가 운영중인 '쉼터'를 비롯해 전국에 5곳밖에 안된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국여성의 전화가 87년에 문을 연 '쉼터'를 이용한 매맞는 아내들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부부싸움' 정도가 가볍게 여기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쉼터의 이용자는 물론이고 한달 평균 50여명에 이

르는 상담자 거의 전부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고, 목발을 짚고 오거나 목뼈를 다쳐 목에 깁스를 하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문자 상담2부장은 밝혔다.

실제로 쉼터 5주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89년부터 91년까지 쉼터를 이용한 여성 1백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타의 양태(복수응답)는 '손발로 때린다'가 67.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다치는 대로 때린다'(47.6%), '흉기로 때린다'(18.9%), '옷을 벗기고 때린다'(7.0%), '담뱃불로 지진다'(4.2%) 등으로 매우 잔인하고 흉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담아 지난 25일 <쉼터 보고서>를 펴낸 한국여성의 전화 김계정 대표는 "구타여성 대부분이 결혼초부터 맞고 살

아 정신적으로 폭력의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이들이 당장 구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가 곳곳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맞는 아내문제가 심각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쉼터를 꾸러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힌 한국여성의전화는 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의한 △쉼터의 양적 확대 △쉼터 수용인원의 확대 △매맞는 아내의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 확보 △폭력남편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법적 장치 △매맞는 여성을 위한 취업훈련 △전문 변호사·의사의 확보 △병원·경찰서와의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주별로 2백여개의 쉼터가 설치돼 피해여성이 곧바로 피신해 보호받을 수 있고,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쉼터의 확산과 구타법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사진은 매맞는 아내를 주제로 한 소형영화 <굴레를 벗고서>의 촬영장면.

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선 매맞는 아내들을 보호하고, 구타남편을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93년부터 가칭 '구타법' 제정운동을 펼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내년초 구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94년제국회에 법제정 청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매맞는 아내들을 위해 상담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한국여성의 전화(708-4400, 4399) △서울 자매복지회관(665-9237) △부산 여성의 쉼터(051-817-6464, 4321) △대구 애련회, 여성의전화(053-742-1331~2) △광주 여성의전화(062-226-7739) 등이다.

<신연숙 기자>